

# ‘다자녀행복장학’ 폐지되고 ‘학생 역량강화장학’ 신설된다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내년 1학기부터 ‘다자녀행복장학’이 폐지되고 ‘학생 역량강화장학’이 신설된다.

다자녀행복장학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분위 9, 10 구간의 다자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된 교내 장학이다.

다자녀행복장학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분위 9, 10 구간의 다자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된 교내 장학이다. 9, 10 구간 학생들은 학기 별로 각각 20만 원, 10만 원씩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장학팀은 폐지 배경에 대해 “최근 국가장학금 정책의 확대와 소득 연계 지원 강화로 국가장학금 체계에서 가계 중심 장학의 상당 부분이 보완됐다”며 “교내에서 같은 목적

의 장학을 중복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준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됐으며,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2025 교육혁신 전략’에 따라 장학 체계를 학생 성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장학팀은 “기존 장학의 일정 부분을 국가지원체계에 이관하고, 교내 장학은 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성장 경로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행복장학의 폐지는 단순한 제도 삭제가 아닌 국가장학 제도 변화와 본교 장학 운영 방향성을 반영해 재구조화한

결과”라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성장 기회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가계 중심 장학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측은 학생 성장 기반 장학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9, 10 구간 다자녀 학생을 위한 대체 장학에 관해서는 “특정 소득분위 또는 특정 유형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장학 신설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제도를 소득 중심에서 학생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진로·연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역량강화장학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금 기준은 현재 내부



장학팀은 “기존 장학의 일정 부분을 국가지원체계에 이관하고, 교내 장학은 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성장 경로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대학주보DB)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장학팀은

“다자녀행복장학 축소로 발생하는 재원은 전액 학생 역량강화장학으로 재배분되며, 전체 장학 규모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장학제도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라며 “장학제도 개편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

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캠퍼스 간 장학 제도 일원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학팀은 “캠퍼스 특수성이 필요한 일부 장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학이 동일 기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2026년부터는 서울캠퍼스에서만 운영되던 ‘꿈도전장학’과 ‘점프장학’이 국제캠퍼스에도 도입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 “사는게 어렵고 힘든 학생에게 장학금 가길” 회기동 할머니 장학금 50명 학생에 수여

리서영 기자 rsy1313@khu.ac.kr

단출한 옷차림의 한 90대 할머니가 집이 한가득 담긴 배낭을 메고 지난 5월 본관 건물로 들어섰다. 지팡이를 대신해 우산을 땅에 짚던 할머니는 복도에 나온 대외협력처 직원에게 “기부하러 왔다.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곧이어 배낭에서 꺼낸 비닐봉지 속에는 신문지 더미가 들어있었다. 천만 원씩 세 묶음, 100만 원 스무 묶음, 총 5천만 원의 현금이었다. 기부자는 “나는 형편이 어려워 못 배웠지만, 어려운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장학금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높은 곳에 기부해야 정당하게 쓰이게 될 것 같아서 경희대에 기부를 하니, 학생들 장학금으로 꼭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예우품과 기념사진도 거절하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났다. 기부자는 평생 파마 한 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여식은 회기동 할머니 장학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영상에는 기부자가 학교를 찾아와 기부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기부자의 얼굴이 나온 기부 당시의 사진 장면도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조 차장은 “할머니께서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 만큼은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했으면 한다”며 영상을 제작한 취지를 밝혔다.



회기동 할머니 장학에 선발된 학생들은 장학금이 단순한 돈이 아닌 꿈에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리서영 기자)

하지만 귀가 굉장히 어두우시기에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못하셨다”고 설명했다.

수여식은 회기동 할머니 장학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영상에는 기부자가 학교를 찾아와 기부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기부자의 얼굴이 나온 기부 당시의 사진 장면도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조 차장은 “할머니께서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 만큼은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했으면 한다”며 영상을 제작한 취지를 밝혔다.

김도균 대외협력처장은 기부자

가 보내온 편지를 대신해서 읽었다. 기부자는 “저는 여러분께 제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과 미래가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더 크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장학금은 단순한 돈의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믿음의 표시”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최보라(조리앤푸드디자인학 2024) 씨는 “가정 형편으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직장을 다니다 우리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기에 도움을 주신 할머

니께 너무 감사하다”며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유동균(정치외교학 2021) 씨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을 믿으라는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최근 시험을 준비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는데 누군가가 나를 묵묵히 응원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할머니는 사는 게 어렵고 힘든 학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이 가기를 바라셨다”며 “할머니의 연세가 많으시고 병학도 다가오고 있기에 할머니의 뜻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장학생 선발을 서두른 이유를 설명했다.

정이나 팀장도 “할머니께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실 수 있게 연도별로 2,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50명에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할머니의 뜻을 빨리 이뤄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회기동 할머니 장학은 250명이 넘는 지원자 중 선발을 거쳐 최종 5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장학금이 단순한 돈이 아닌 꿈에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며 다짐했다.

## 대학주보 편집인에 신동면 교수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신임 신문방송국장(우리신문 편집인)으로 신동면(행정학) 교수가 지난 21일 임명됐다.

2001년 우리학교 교수로 부임한 신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지난해 행정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2014년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2018년 한국행정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신 국장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巴斯(Bath) 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